

도심사찰마다 자연미 물씬한 경관수로 조성을

수로

수로는 한마디로 물을 처리하기 위해 낸 물길이다. 수로에는 빗물을 처리하기 위한 배수로를 포함해서 못에 물을 대기 위한 입수로와 물을 빼기 위한 출수로 수경관 감상을 위해 설치한 경관수로 등이 있다. 수로의 유형에는 명거식(明渠式)과 암거식(暗渠式)이 있는데, 어떤 유형의 수로를 설치하는가는 수로 설치위치나 기능에 따라서 달라진다. 수로를 만들기 위해 사용한 재료를 보면 바닥의 경우에는 강회다짐, 가공하거나 가공하지 않은 판석, 거친 활석이나 장대석이 많으며, 측면의 경우는 사괴석 자연석 잡석 장대석 등이 많다. 한편, 통나무나 대나무를 잘라서 만든 비구같이 특이한 형식의 수로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조경공간에는 경관수로보다는 배수로나 입수로, 출수로 같은 기능적 수로가 많다. 이것은 담장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고 흐르게 하는 인공적인 경관수로 만들기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계류를 선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주 안압지, 구황동원지 등 신라시대에 조성된 정원에서는 입수로나 출수로를 경관수로로 활용한 흔적을 볼 수 있어 흥미롭다. 특히 안압지에는 담장 밖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지랑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식의 경

수로는 물 처리하기 위한 물길
설치위치·기능따라 유형 달라
일본서는 경관수로 조성 보편화
한국에는 기능수로가 더 많아



일본 모쓰지에 만들어진 아리미즈.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계류와 같은 형식으로 만든것으로 치밀한 조성기법을 동원해 인공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관수로를 연속적으로 설치했다. 그 가운데 2단 석구는 당시의 우수한 조형수준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작품이다. 조선시대에 조성된 궁궐에서도 경관수로를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창경궁 통명전 옆 언저리에 물을 대는 도수구가 대표적이다. 이것은 돌을 다듬어 만든 것으로 디자인이 단순하지만 군더더기가 없는 절제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이 도수로는 수원이 되는 물의 남측 면에 만들었고, 물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북측 시작점은 높고 남측 끝점은 낮게 했다. 이것은 각형의 장대한 석재(330×540×4120mm) 상부를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요철형으로 파낸 것으로 끝단은 석루조의 형태를 보인다.

일본정원에서는 경관수로 조성이 보편화돼 있다. 이 경관수로는 독특한 일본적 취향을 반영한 것으로 지랑에 물을 끌어들이는 입수로를 경관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 경관수로 형식을 아리미즈(澗水)라고 한다. 이와테(岩手)현 히라이즈미(平泉)의 모쓰지(毛越寺)에서 볼 수 있는 아리미즈는 사찰에 만들어진 것 가운데에서는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모쓰지의 아리미즈는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계류와 같은 형식으로 만든 것으로 치밀한 조성기법을 동원해 인공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아리미즈에는 이 같은 형식도 있지만 긴가쿠지(은각사)나 긴가쿠지(금각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수로 좌우에 돌을 연속적으로 놓아 물의 흐름을 유도하도록 만든 단면이 좁고 구불구불한 것도 있다.

순천 선암사에도 일본의 아리미즈 형식의 경관수로가 있었다. 이 수로는 해우소 옆에서 시작해 일주문 좌측에 만들어진 곡지(曲池)로 연결되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수로 형식을 보면 단면이

30~50cm 정도 되도록 했고, 전체길이는 약 23m 정도 되도록 만들었다. 또, 수로좌우에 자연석을 모양 있게 쌓아 수로를 경관적으로 아름답고 구조적으로 안정되도록 했다. 이것으로 볼 때, 선암사 경관수로는 일본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리미즈의 형식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과거 일제강점기에 선암사에 일본신도가 많았다. 또, 주지스님들이 대부분 일본에서 공부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선암사의 경관수로는 일본사찰의 아리미즈로부터 영향을 받아 조성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성보박물관을 신축하면서 이 수로가 멸실됐다. 수로에 연결된 자연형 곡지 역시 원래의 형태가 변형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통사찰 가운데 경관수로를 조성한 사찰로는 김천 직지사를 꼽을 수 있다. 직지사의 경우에는 사역주변을 흐르는 계류로부터 물을 끌어올려 경관수로를 조성했다. 이 경관수로를 흐르는 물소리로 인해 사부대중이 청량감을 얻게 된다. 그러나 수로 형식이 한국사찰이 가진 고유한 경관적 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부분적으로는 콘크리트관을 사용함으로써 자연성을 잃었다. 향후 도심사찰의 경우 자연을 경내에 도입한다는 차원에서 경관수로의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근년에 만들어진 서울 봉은사의 경관수로는 바람직한 사례로 꼽을 만하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안압지 입수장치는 입수로·출수로를 경관수로로 활용했다.



봉은사 경관수로는 자연을 경내로 들여온 효과가 있다.



사역주변을 흐르는 계류로부터 물을 끌어올려 조성한 직지사 경관수로



돌로 다듬어 심플한 미를 자랑하는 창경궁 도수로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New
신제품 **흑룡초**
임진년은 흑룡의 해입니다
흑룡초로 소원성취 기도하십시오
크기 7.5 × 29cm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강화사지밭약썩양초 한방밀납양초

① 약썩초 90cm	② 약썩초 연봉 원기둥	③ 약썩초 1호	④ 약썩초 2호	⑤ 약썩초 3호	⑥ 약썩초 4호	⑦ 약썩초 1호 반야심경	⑧ 약썩초 2호 반야심경	⑨ 약썩초 3호 반야심경	⑩ 약썩초 4호 반야심경	⑪ 약썩초 1호 반야심경	⑫ 약썩초 2호 반야심경	⑬ 약썩초 3호 반야심경	⑭ 약썩초 4호 반야심경	⑮ 약썩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호랑이, 뽕)
90cm	7.0 × 34cm	5.9 × 18cm	5.6 × 27cm	4.7 × 13cm	4.7 × 13cm	5.9 × 14cm	5.9 × 14cm	5.9 × 14cm	5.9 × 14cm	5.9 × 14cm	5.9 × 14cm	5.9 × 14cm	5.9 × 14cm	5.9 × 14cm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제조-삼환양초

새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삼산화제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 원 가입

삼환양초에서는 범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범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범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